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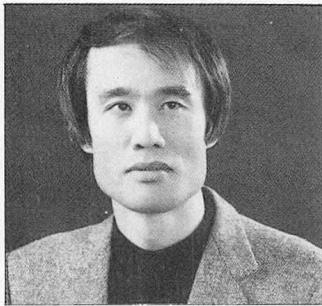
오늘의 현실을 천착하는 사회과학

1988년 경제학·사회학 분야의 '성과'

경제학

현실적 유용성 갖는 '실천의 이론'

鄭雲暎
경제평론가



해마다 이맘 때면 느끼는 일이지만, 역시 절실한 과제는 경제에 있지 경제학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이론이 현실의 반영이라는 어느 '고전'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학문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도처에서 목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체협해온 그 혹독한 수난과 진통의 역정을 사회과학이 그대로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일의 순서상 당연한 요구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떠한 처방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무성한 논의들이 올해의 '이론적 실천'에 주류를 이루었다면, 우리의 작업도 마땅히 그 과정을 추적하고 검토하는 데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개의 연구소, 2개의 연

구실, 6개의 연구회가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움'의 발표논문집으로 엮어낸 「8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역사비평사, 1988)은 한 시대의 요구를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 연합심포지움이 겨냥했던 각 학문간의 연대와 교류,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중간 점검, 그리고 사회과학 이론의 대중화라는 본래의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독자에게 위임하면서, 다만 그러한 발상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과학연구의 반성의 기능만큼 크게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이 책은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땅의 사회과학을 독점하고 있었던 기존의 패러다임과 기성의 학계가, '민주화 운동'으로 통칭되는 그 거대한 열기와 격동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학술행사가 지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한계로서, 제각기 발표된 여러 논문들을 횡적으로 연결하는 논리에 다소 긴장감이 풀린 틈이 보이고 또한 때때로 이론적인 정합성보다는 '혈기'가 앞서서 성급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들의 생각과 발언이 10년, 20년, 30년 뒤 이 나라의 사회과학이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

와 의의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가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사회의 성격을 다소 생경한 분석도구를 이용해서 규명하려는 논쟁들이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란 한마디로 국가권력과 독점자본 사이의 유착과 예측의 관계를 축으로 현대의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서관모 편저의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새길)은 주로 소련과 독일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치경제학의 발전이 거둔 이론적인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미 출판된 '제1분책'은 주로 '정통적' 입장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으며, 곧 뒤따라 나올 '제2분책'에서는 전반적 위기 이론이나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에까지 그 지평을 다소 확대할 예정이다.

이 책이 해외 학계의 '이론'이나 '실천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편집부 역임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I」(벼리)은 그러한 이론들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의 여부를 한국사회 개혁이라는 실천적인 임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이 책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입장을 아주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되는데, 그러한 자세는 경우에 따라서 '당파성'에의 집착이란 다소 거친 반발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비판을 감당하고 또 거기에 대비하는 일이 다음의 과제가 될 것이다. 더구나 문제제기, 비판, 평가, 좌담, 토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려는 새로운 편집태도는, 비록 그들

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게일지라도 무척 성실한 노력의 표시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다소 관심의 각도를 달리해서 金炯基의 「韓國의 獨占資本과 賃勞動」(가치)은 좀더 신중한 시각과 한층 '안정된' 방법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서의 독점적 자본축적의 진전과 그것이 초래하는 노동과정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의 학위논문을 보완한 이 책은 '예속적 독점자본주의하 임노동의 이론과 현상분석'이란 그 부제가 말해주듯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예속성'과 '독점성'에 동시에 포섭된 '예속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이 저서의 이론적인 관점과 실천적인 유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나타날 그 평가의 결과와는 별도로, 노동과정의 변모를 통해 "계급모순의 구체적 형태와 노동운동의 합법직성을 해명하려고 하였다"는 저자의 취지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교과서의 집필로 명성과 수입을 올린 기성의 출판 풍토에서, 한 사회의 성격규정 문제와 같은 자칫 제한된 지식인 집단의 학문적인 유희로 그쳐버렸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우기 그것을 책으로 엮어내는 노력은 참으로 중요한 추세의 변화이다. 아직 연구자들의 지식의 온축이 깊지 못해 단행본 형태의 단독 저술보다는 학회지나 무크지를 통한 '집단 저작'이 주류를 이루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의 정세로서는 그러한 소득이나마 크게 고무되어야 할 형편이다.

서울·중로구 견지동 110-33 (덕수B/D-102호)
☎(代) 733-5755

眞影社

책자전문업체

電算寫植組版 SYSTEM

레이저프린트로 완벽한 교정
한자 한자에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유진 AD

입력에서 출력까지
온라인 전산 시스템 가동

레이저 프린트를 이용한 교정

● 전산사식, 사진사식, 편집, 광고기획
TEL. 273-6486 FAX. 273-6173
서울특별시 중구 자동2가 69 (동명 BD3층)

책을 가꾸드립니다

단행본, 정지, 사본의 기형, 화제, 편집, 제작
크고그 인라인시스템(인라인)에
영 접합되는 메탄수을 쓰았습니다.
지금 전화 주문시도, 기대하십시오.

출판·편집 대행
서울시 마포구 서수동 45의 5 (121호)
716-0280

「출판저널」 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판형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개당 제작실비 2,0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계 3,5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로 직접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사회학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 증폭

韓相震

서울대 사회학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면서도 공존하는 모범적인 학문이다. 지면 제약상 주요분야의 저서와 역서만을 간략히 살펴본다.

우선 이론분야를 보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의 급속한 증가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저작들의 다소 성급한 번역으로 채워져 있다. 지적인 노력이 용해된 편지로는 서관모의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관심을 끈다. 번스타인의 「현대정치사회이론」과 크레이브의 「현대사회이론의 조명」이 번역된 것도 큰 수확이라 할 수 있겠다. 연구저서로는 막스 베버의 취향이 가득 담긴 이종수의 「전환기 사회학의 좌표」와 김대환의 「전통과 근대의 갈등: 민족사회학의 시도」

그리고 김진균의 「사회과학과 민족현실」이 돋보인다.

산업사회학 분야로 가면 젊은 학자들에 의한 사회구성체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 도서출판 버리가 낸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과 일송정이 펴낸 「정치노선」이 아마도 대표적인 보기일 것이다. 주종환의 「한국자본주의사론」은 다른 취향의 저술을 대변한다. 김형기의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박현채의 「민족경제와 민중운동」도 귀중한 결실로 평가될만 하다. 변혁주체에 관해서는 한상진의 「변혁의 주체는 누구인가」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김경동의 「노사관계의 사회학」은 국제비교를 시도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영희(편)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론」도 주제에 관한 입문서로서 가치를 지닌다. 자료적 가치로는 풀빛이 낸 「'87 노동자 대투쟁」과 이영민의 「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이해」가 꼽힐 것 같다.

사회사 분야로 가면 한국사회사연구회가 3년째 매우 정열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6년에 5권, 87년에 4권의 논문집을 낸 이래 금년에도 5권의 논문집을 출간했다. 주제는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 「한국 고중세사회의 구조와 변동」 「일제하 한국

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 「현대 한국 자본주의와 계급문제」이며 30여명의 사회학자가 이에 참여했다. 이 활동을 이끌어가는 신용하교수는 금년에 「한국근대 민족운동사 연구」를 출간했다.

정치사회학 분야에도 활력이 있는 것 같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는 젊은 세대의 다양한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상진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박동서, 김광웅의 「한국인의 민주 정치의식」, 심영희 「국가권력과 범죄통제」도 각각 흥미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엮은 「지방자치와 지역운동」은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내용도 유익하다. 역서로는 오페의 「국가이론과 위기이론」이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오도넬의 「라틴아메리카와 민주화」도 우리에게 암시적이다.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에 관한 저술도 발견된다. 노길명의 「가톨릭과 조선후기 사회변동」 및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김종규의 「한국 근현대사의 이데올로기」, 김태길, 김동길 외 「한국사회와 시민의식」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민중문화론적 시각은 민중문화운동연합이 낸 「전망과 건설」에 잘 드러나 있다. 역서로는 윌리엄즈의 「문화와 사회」, 에플의 「교육과 이데올로기」, 노라의 「현대 자본주의와 정보사회」, 깨르블레의 「오늘의 소련사회」가 관심을 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문화이론과 전략을 소개하는 역서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 및 여성사회학 쪽에서는 조혜정의 「한국의 여성과 남성」, 이명희 「여성과 노동」이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또 하나의 문화가 엮은 「지배문화, 남성문화」도 흥미롭다. 역서로는 폭스의 「풍속의 역사」, 미드의 「세 부속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브롬웰의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이 읽어볼 만하다. 운동론적 시각으로는 동녘이 펴낸 「여성해방론」, 김지혜(편) 「세계여성운동」이 관심을 끈다.

한편 1988년은 북한관계 일차 문헌 및 자료들의 경쟁적 출간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학문적 연구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은숙의 「북한사회연구」는 예외이다. 방법론적 쟁점들과 몇가지 구체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태영의 「북한여성」, 고태우의 「북한의 종교정책」도 관심을 끄는 저술이다. 김현철, 서인성 외 「NL」론 비판」은 급진적 관심을 보여준다.

농촌사회학 분야로 가면 최재석의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와 홍동식 「농촌사회학의 이해」가 금년의 귀중한 결실로 평가받을 만하다.

아울러 사회학분야에서 금년의 대표적 논문집으로서는 고영복교수의 화합을 기리는 「사회계급과 사회운동」과 「사회변동과 사회의식」, 그리고 김대환교수의 화합을 기리는 「전환기의 한국사회」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출판문화를 일구는 두 총서

출판·편집총서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편/白承吉·朴觀喜 옮김

값 4,000원

2 출판의 진실

스탠리 언윈/韓永鐸 옮김

★「오늘의 책」으로 선정 값 5,500원

3 책의 혁명

로베르 에스까르베/林文榮 옮김

★「오늘의 책」으로 선정
★한국번역가협회 추천도서 값 4,500원

4 책 만들기

마살리/鄭丙圭 옮김

□ 미간

5 잡지 편집의 이론과 실제

高廷基 지음

★한국출판학회상 값 6,000원

6 책은 만인의 것

출판제작 18년동안의 기록/李瑞薰 지음

값 6,000원

7 뉴미디어 용어사전

金承萬 편저

값 6,500원

8 출판회계

朴永緒 지음

값 7,000원

9 편집자의 세계

高廷基 편저

값 5,000원

10 출판경영론

H·S 베일리 Jr./全泳杓·吳慶鎬 옮김

값 6,000원

11 교정기술 (실습자·모범답안지를 합철한 것)

편집부 편

상권 값 4,000원 · 하권 값 5,000원

12 출판대감 (해방 후 4년간의 종합도서목록)

影印·限定版

값 8,000원

글 더 잘 쓰기 총서 —어떤 글이어야 팔리는가

1 글의 비밀

心理言語學者 金炳元 지음

값 3,500원

2 논픽션 쓰는 법

헤어즈 B. 제이콥스/金炳元 옮김

값 4,000원

3 소설의 방법과 인식

伊藤整/李基炯 옮김

값 4,500원

4 추리소설 쓰는 법

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高廷基 옮김

값 4,500원

5 동화 쓰는 법

리와인담/李相琴 옮김

값 4,500원

6 그림책 쓰는 법

엘렌 E.M 로버츠/金正 옮김

★청소년우량도서선정 값 5,000원

7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

엘렌 F. 심버그/고정기 옮김

★88년도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普成社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5
출판단지내 ☎ 719-0784